

Date: 21 Nisan 5786 (April 8, 2026)

Torah Portion: Sh'mini

Topic: 밤을 지키는 세 파수, 제 1 부

성경의 다니엘 (7:2-3)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 (אֲמ, הַיָּם)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예레미야(Yeremiyahu) 또한 네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상에서 왕국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은 다니엘의 환상처럼 바다가 아니라 ‘수풀’ (אֲרָז, הַיַּעַר)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 (5:6)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미드라시 (Midrash)는 이 두 환상의 차이를 심오한 구분을 통해 화해시킵니다. 다니엘의 환상과 관련하여,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암시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공로가 있다면 (זָכָה, זָכָה), 네 왕국은 바다에서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수풀에서 올 것입니다. 바다 생물이 바다 밖으로 나올 때는 자신의 본래 영역을 벗어난 것이므로 비천하고 굴복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육지 동물이 수풀에서 나올 때는 뿌리 깊은 힘의 원천에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비천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즉, 왕국들이 나타나는 형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시편 (80:13)에는 “수풀에서 나온 (מִיֶּאֱרָז, מִיֶּאֱרָז) 멧돼지들이 해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 전통에서 히브리어 단어 ‘미야아르(מִיֶּאֱרָז)’는 ‘아인(עַיִן)’ 글자가 위로 떠 있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자들은 이 철자상의 비정상적인 특징을 통해 숨겨진 조건 (תְּנַיִן, תְּנַיִן)을 가르칩니다. 즉, 당신들이 공로가 있다면 원수들은 “강에서 온 (מִיֶּאֱוֹר, מִיֶּאֱוֹר)” 것처럼 약해지고 불안정한 형태로 올 것이나, 공로가 없다면 “수풀에서 온 (מִיֶּאֱרָז)” 것처럼 온전한 힘과 지배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처럼 텍스트 자체에서도 유배 (Exile)는 민족의 영적 상태에 따라 역동적으로 형성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어느 한 밤에는 세 짐승을 꿈꾸었고, 다른 밤에는 한 짐승을 꿈꾸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를 통해 네 번째 왕국이 앞선 세 왕국을 합친 것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강력하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마하랄 (랍비 예후다 로브 벤 베찰렐)은 이 개념을 “밤은 세 파수 (שלוש משמרות הלילה, שָׁלוֹשׁ מִשְׁמֵרוֹת הַלַּיְלָה, 하-라이라, 샬로시 미슈마롯 하-라이라, 로 구성된다”는 게마라 (베라코트 3a)의 가르침과 연결합니다. 그는 밤이 유배를 상징하며, 특히 ‘헤스테르 파님’(הֶסְטֵר פָּנִים), 즉 신성한 현존의 숨겨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첫날 밤에 본 세 짐승은 밤의 세 파수에 해당하며, 각 파수는 바빌로니아,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라는 세 왕국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의 유배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날 밤, 그는 밤의 세 파수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짐승을 꿈꾸었습니다. 이는 네 번째 왕국인 에돔 (Edom) 치하의 유배가 이전의 모든 유배를 합친 것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며, 실제로 이전 왕국들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게마라는 또한 매 파수마다 거룩하신 분 (הַקְדוֹשׁ בְּרוּךְ הוּא, 하카도쉬 바루흐 후, 후아)께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신다고 전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성전을 파괴하고, 나의 성소를

불태웠으며, 그들을 세계 민족들 사이로 유배보냈노라.” 이 애통함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전례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정에 낭독하는 ‘티쿰 차초트’(תיקון הצות)에서 신자들은 “어찌하여 이 성이 홀로 앉았는고” (애가 1:1)와 같은 구절을 통해 파괴를 애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다 (Amidah) 기도문에서 “우리 눈으로 여호와께서 자비로 시온에 돌아오심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회복을 갈망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본 ‘밤’은 이스라엘인들의 기도 리듬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네 왕국은 인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 영적 힘에 대응합니다. 이는 영혼의 세 가지 기본 단계인 **네페쉬** (נפש, 생명력), **루아흐** (רוח, 감정/도덕), **네샤마** (נשמה, 지성)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의 힘인 ****말(דיבור, דיבור)****의 기능입니다. 이 ‘말’의 능력은 인간을 ‘엘로힘의 형상’(צלם אלהים, צלם אלהים)으로 창조된 존재(아담, האדם)로 정의합니다.

처음 세 왕국은 각각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간 영혼의 특정 측면을 굴복시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바빌로니아는 물리적 차원(네페쉬), 메디아-페르시아는 감정과 도덕적 차원(루아흐), 그리스는 지적이고 철학적인 차원(네샤마)에 대한 지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왕국인 에돔의 목적은 인간의 전체성을 지배하는 것, 즉 세 단계를 모두 통합하는 힘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돔 치하의 유배는 이전 세 유배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며, 그 기간 또한 셋을 합친 것보다 길고 대등한 무게를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성질은 에돔을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만이 “큰 말을 하는 입”(단 7:8, 11)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צלם אלהים’의 표현인 ‘말’의 기능 자체를 에돔이 지배하려 함을 암시합니다.

게마라는 밤의 세 파수가 하늘에서 분별되지만 땅에서도 구체적인 징조를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파수에는 나귀가 울고, 두 번째 파수에는 개들이 짖으며, 세 번째 파수에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아내가 남편과 대화합니다. 표면적으로 이는 밤의 경과를 알려주는 실용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나 마하랄은 이를 더 깊은 수준에서 해석하여, 유배 중 이스라엘이 겪는 다양한 고통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나귀(하모르, חמור)는 **물질성**(호메르, חומר)을 암시하며, 유배 생활의 육체적 짐과 비하를 상징합니다. **개**(켈라빔, כלבים)가 짖는 것은 뻔뻔함과 참소를 반영하며, 열방의 적대감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파수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남편과 대화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는 **연속성, 친밀함, 그리고 언약적인 인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유배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마지막 단계에는 생명과 관계의 고요한 지속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해, 말을 통해, 그리고 인간(아담) 안에 내주하는 ‘צלם אלהים’의 영원한 현존을 통해 유지됩니다.